‘질투의 화신’ 으로 돌아온 로코퀸 공효진

SBS TV 수목드라마 24부작 오늘 첫방송
“나이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보여드리고파”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공효진(36)이 안방 극장에 복귀한다. SBS TV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극본 서숙향, 연출 박신우)이다.

공효진은 ‘파스타’(마지막회 시청률 21.2%) ‘최고의 사랑’(21.0%) ‘주군의 태양’(21.8%) ‘괜찮아 사랑이야’(12.9%)까지 자신이 맡은 드라마를 모두 성공시킨, 이 장르 대표 여배우다.

이번 작품은 질투라고는 몰랐던 마초 기자와 재벌남이 생계형 기상캐스터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효진이 기상캐스터 ‘표나리’를, 조정석이 기자 ‘이화신’을, 고경표가 재벌 3세 ‘고정원’을 연기했다.

연출을 맡은 박신우 PD는 이번 작품에 대해 “기획 의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망가짐이 바로 질투”라며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내 앞에서 무너질 때 느끼는 사랑스러움과 애잔함이 함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역시 공효진의 연기에 쏠린다. 공효진은 다수의 로맨틱 코미디물을 거치면서 ‘공블리’(공효진+러블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파스타’ 이후 다소 비슷한 연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공효진은 이와 관련, “나이에 맞는,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생계형 캐릭터이지만, 마냥 긍정적이고 착한 인물은 아니다. 보통 사회 새황을 하는 여성분들의 모습을 그림과 동시에 성깔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사이다스럽다’고 하는 통쾌함을 만들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의 극본을 쓴 서숙향 작가는 공효진을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이끈 ‘파스타’를 썼다. 공효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파스타’ 때 모습이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은 연기를 반복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서숙향 작가이니까 믿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했다.

공효진은 이선균·차승원·소지섭·조인성 등 명실상부 당대 최고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에 그의 파트너는 조정석이다. 조정석은 앞서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최고다 이순신’,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에서 이 장르에 어울리는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조정석은 이번 작품을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의 장점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모두 느끼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다”며 “사람이 질투할 때에 나오는 촌스럽기 그지없는, 바닥까지 내려앉는 망가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제작 발표회에서 주연을 맡은 조정석(왼쪽) 공효진(오른쪽)

공효진 또한 “조정석은 기존 남자 배우들과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같이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대본을 보고 작가와 함께 이 역은 조정석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쉬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질투의 화신’은 총 24부작으로 오늘 첫 방송된다.

/뉴시스

‘금의환향’ 박인비, “4년 뒤 도쿄 올림픽 좋은 목표 될 것”

“당분간 컨디션 회복 중점… 에비앙 챔피언십 나가고 싶다” 강조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역사적인 ‘골든 커리어그랜드슬램’ 금자탑을 쌓은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4년 뒤 일본에서 치러지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 “좋은 목표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박인비는 “도쿄 올림픽 출전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때에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면 2연패는 좋은 목표”라며 “당분간 컨디션 회복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다른 큰 장기적인 목표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회복”이라며 “복귀 시기는 경과를 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지만 에비앙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른 9월 치러지는 에비앙 챔피언십은 2013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대회다.

이로 인해 LPGA 메이저대회는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지만 커리어그랜드슬램(생애 통산 4대 메이저 대회 우승) 인정 기준은 그대로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역사적인 ‘골든 커리어그랜드슬램’ 금자탑을 쌓은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서 인터뷰를 하고있다.

하지만 박인비는 5개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박인비는 손가락 부상에 대해 “재발한 것은 아니고 원래 손가락 부위가 좋지 않았는데 1달 전부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재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통증은 항상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 도중에는 집중하다보니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매 라운드에서 압박을 받았고, 매 순간 메이저 대회 마지막 조로 경기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다. 가장 힘든 경기였다”며 “나라를 대표한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행복한 한 주였다”고 덧붙였다.

우승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물은 나지 않았다”며 “박세리 감독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울어주셨다”고 대답했다.

/김민근기자

구르미 그린 달빛 첫 회 시청률 8% 출발 쾌조

박보검·김유정 주연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첫 회 방송에서 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쾌조의 출발을 했다.

2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극본 김민정·임예진, 연출 김성윤·백상훈) 1회는 전국 평균시청률 8.3%로 나타났다. 이는 전작인 ‘뷰티풀 마인드’의 마지막 회 시청률(3.2%)보다 5.1%P 높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수도권에서 9.0%로 두 자릿수 시청률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서울에서 8.8%, 대전에서 가장 낮은 6.1%였다.

다만 같은 시간대 방송 중인 경쟁작의 시청률은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SBS TV 드라마 ‘닥터스’는 이날 17.8%, MBC TV 드라마 ‘몬스터’는 8.9%를 기록했다.

박보검은 세자 ‘이영’을, 김유정은 내시로 위장해 궁에 들어온 ‘홍라온’을 연기한다. 이밖에 그룹 ‘B1A4’의 멤버 진영을 비롯해 채수빈·곽동연·김승수·전미선·천호진 등이 출연한다.

/김민근기자

최필립, 컨버전스아트 ‘미켈란젤로전’ 홍보대사 위촉

배우 최필립이 컨버전스아트 ‘미켈란젤로展’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막한 ‘미켈란젤로전’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담아낸 전시다.

‘미켈란젤로展’은 본다빈치㈜의 다섯 번째 컨버전스 작품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 건축가, 화가, 그리고 시인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삶과 그의 명작을 최첨단 영상기술과 결합해 펼치는 전시다.

원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한 뒤 입체 영상신호로 프로그래밍해 고화질 프로젝터로 전시장 벽면의 대형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컨버전스 아트전이다.

한편, 미켈란젤로는 13세 때 당대 유명 화가였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70 평생 동안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의 그림과 ‘피에타’, ‘다비드’와 같은 조각을 명작을 제작한 르네상스 최고의 아티스트다. 평생을 오로지 예술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화가로도 불린다.

/김민근기자

음주운전 혐의부인 이창명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방송인 이창명(46)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도주 후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정황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8%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만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